

류현진, 2019 MLB '엽기 기록' 주인공

류현진이 MLB.com 선정 '엽기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류현진이 세운 '엽기 기록'은 '낮 경기 평균자책'이다.

지난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MLB.com은 이날 2019시즌에 나온 진기한 기록들을 발표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낮 경기에서 61이닝을 던져 평균자책 0.74를 기록했다. 류현진의 낮 경기 기록은 라이브볼 시대(1920년) 이후 낮 경기 50이닝 이상 소화한 투수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너클볼 투수인 팀 웨이크 필드가 보스턴에서 뛰던 1995년 기록한 0.89다. MLB.com은 '류현진의 야간 경기 평균자책은 3.11'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코디 벨린저가 46호 이전까지 기록한 '45홀런 45투수 기록'도 엽기 기록에 뽑혔다. 벨린저가 콜로라도전에서 제이크 맥키에게 46호 홀런을 때리기 전까지 벨린저는 45개 홀런을 모두 다른 투수로부터 뽑았다. 맥키는 벨린저에게 올 시즌 2개 홀런을 허용한 유일한 투수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유격수 팀 앤더슨도 '엽기 기록'을 세웠다. 앤더슨은 타율 0.335로 아메리칸리그 타격왕에 올랐는데, 올 시즌 얻어낸 볼넷이 겨우 15개 밖에 되지 않는다. 역대 최소 볼넷 타격왕이다. 종전 기록은 1902년 밥 라조이가 얻은 19볼넷이었다.

올 시즌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거둔 18승 1패 기록도 다비전제도가 생긴 50년 이래 최다 기록이다. 휴스턴 투수 개릿 콜이 세운 10삼진 이상 경기 14경기도 종전 2002년 커트 실링이 세운 13경기를 넘는 신기록이었다.

한편 류현진은 올시즌을 끝으로 다저스를 떠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저스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저블루'는 1일 다저스가 류현진을 잡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다저블루'는 "류현진은 이미 사이영상에 버금가는 시즌을 보냈고 아마도 다저스의 가격적 범위를 초과할 것"이라며 재계약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가격이 맞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류현진의 몸값이 다저스의 지불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다저스와 6년 계약이 끝난 류현진은 FA 시장에 나가는 대신 다저스의 켈리파임오퍼(1년 1,790만 달러)를 수락했다. 올해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MLB 사례를 보면 한 번 FA 시장에 나간 대어급 선수가 원소속팀과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다. 어쩌면 이번 포스트시즌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의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다.

지난해 다저스와 6년 계약이 끝난 류현진은 FA 시장에 나가는 대신 다저스의 켈리파임오퍼(1년 1,790만 달러)를 수락했다. 올해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MLB 사례를 보면 한 번 FA 시장에 나간 대어급 선수가 원소속팀과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다. 어쩌면 이번 포스트시즌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의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다.

지난해 다저스와 6년 계약이 끝난 류현진은 FA 시장에 나가는 대신 다저스의 켈리파임오퍼(1년 1,790만 달러)를 수락했다. 올해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MLB 사례를 보면 한 번 FA 시장에 나간 대어급 선수가 원소속팀과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다. 어쩌면 이번 포스트시즌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의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다.

MLB 파울볼 사고, 매년 100건 이상 발생

메이저리그 경기장에서 파울볼에 의한 안전사고가 연간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BC 스포츠는 전날 2012년부터 올해까지 파울볼 사고로 인한 각종 소송과 뉴스 기사, 경기장에서 응급대응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소 808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경기장에서 여러 차례 파울볼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에서는 파울볼에 머리를 맞은 2살 여자아이가 두개골 골절 수술을 받아 충격을 줬다. 파울볼에 맞은 어린이는 3루 원정 팀 더그아웃 지붕 끝까지만 설치된 파울 보호망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있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또 6월에는 다저스타디움에서 젊은 여성이 파울볼

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파울볼 사고가 급증하자 시카고 화이트삭스, 워싱턴 내셔널스, 피츠버그 파이리츠, 휴스턴, 다저스 등은 시즌 중에 파울 안전망 확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17개 구단은 아직도 관중의 시야 확보를 내세워 파울 안전망 확대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중 스스로 경기장에 집중하면서 피하거나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ESPN이 지난 6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메이저리그 팬들은 야구장에 보호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 7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CNN은 지난 1일 "파울볼로 인해 다치는 관중이 매년 1750명가량 된다. 타자가 사구를 맞는 것보다 관중이 파울볼에 맞는 일이 더 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모성을 위한 승리" 두 엄마의 '위대한 질주'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진행된 지난 30일은 어머니의 힘이 발휘되니 날이었다.

이날 열린 여자 100m 경기에서 켈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3)는 10초71의 시즌 최고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고, 또 다른 여자육상 스타 엘리슨 펠릭스(34)는 혼성 1,600m 계주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여자 단거리를 대표해온 이들은 엄마가 된 뒤 처음 맞이한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공백 이후 다시 정상에 복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세상의 편견을 당당히 이겨냈다.

AP통신은 이날 "모성을 위한 승리였다."며 "프레이저-프라이스가 올랐다. 그리고 이날은 육상계에서 '어머니의 날'로 불려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2015년 베이징 대회 이후 4년 만에 세계선수권 여자 100m 타이틀을 되찾으며 대회 8번째 금메달이자, 10번째 메달(금 8, 은 2)을 목에 걸었다. 여자 100m에서는 4번째 금메달을 따며 역대 최다 1위를 기록했다. 152cm의 작은 키에도 폭발적인 질주와 빠른 패선 감각으로 트랙에서 주목 받았던 프레이저-프라이스는 자신의 최고기록(10초70)에 0.01초까지 근접할 만큼 변함없는 실력으로 정상에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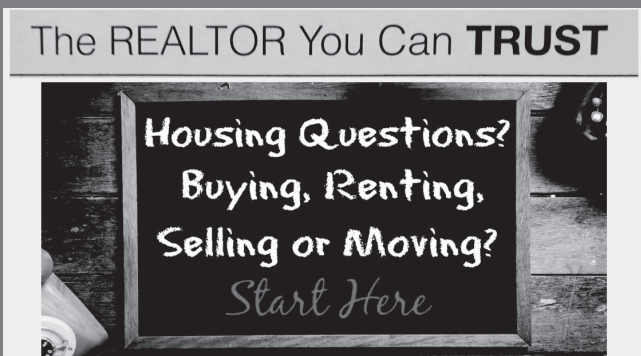
펠릭스는 이번 대회 처음 정식 종목이 된 혼성 계주에서 미국의 두 번째 주자로 나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 세계신기록으로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그녀는 세계선수권 12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금 11개)의 최다 금메달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딸을 출산한 펠릭스는 '임신 기간 후 원금을 70% 삭감한다'는 나이키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유명하다. 선수들은 물론 팬들도 '차별'을 지적하며 응원했다. 결국, 나이키는 "펠릭스와 모든 여성 선수들, 팬들에게 사과한다. 앞으로 나이키는 후원 선수가 임신해도 후원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펠릭스는 "나와 여자 선수들의 싸움이 많은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머니도 할 수 있다'는 걸 성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보다 더 강해진 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교육, 학군 전문가로 대학입시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맞는 학군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llege Consultant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